김순환, <나무>, 종이에 수채, 26×37㎝, 2020

이정숙, <우물가 소낭구>, 종이에 색연필, 수채, 32×43cm, 2021

여정숙, <해산물 모임>, 종이에 펜, 색연필, 24.9cm×35.1cm, 2018

공간섬알은 강화군 서도면에 속한 민통선 내 작은 섬 아차도에 위치한 복합예술공간이자
시각예술작가와 창작하는 아차도 주민으로 구성된 예술공동체다.

2014

아차도 주민 김부린에 의해 무인카페 <공간섬알> 설립

2018

프로젝트 생활장인의 섬 디자인, 아차 아트플랫폼 (박유미, 홍유경 기획)
주민들이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림으로 고구마박스, 새우젓 통 라벨 등 특산물 패키지를 제작했다.

2020

프로젝트 아차 아트플랫폼 (박유미, 홍유경 기획)
주민들의 그림으로 일바지, 가방 등 몸에 착용, 이동하는 아트 굿즈를 만들고 제 1회 아차도 패션쇼 <내 바지는 내가 그린다>를
개최했다. 또한 프로젝트의 후원과 아차도 아트 굿즈의 프로파간다를 목적으로 소셜 펀딩을 진행했다.

2021

프로젝트 아차 아트플랫폼2 (홍유경 기획)
다양한 예술인과 협업하여 1인 컨텐츠 영상 제작, 아차도 악기 만들기_연주 워크숍을 진행하고 마을에서 열린
제 1회 아차도 예술축제 <수평선 라이브>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결과물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정체하지 않고 변주하는 예술활동을 지향하며 아차도가 예술의 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을 향해
공간섬알의 활동은 현재 진행중이다.

내년이면 아차도와 인연을 맺은 지 햇수로 10년째이다. 아차도에는 현재 약 스무 가구 서른 다섯 명 정도, 연령대 60세에서 90세 사이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2012-2013년 참여했던 공공예술프로젝트를 통해 2년동안 주민들과 불쑥 방문해도 이상할 것 없는 익숙한 관계를 형성했고 그 때 그들한테서 발견한, 오랜 노동을 통해 발달한 예리하고 넓은 거시적 시각과 섬세한 미시적 감성은 몇 년 후 주민들 주체적인 창작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겠다는 계기로 이어졌다.
가장 능동적이자 배우지 않고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예술활동은 그림이었다.
나에게 아차도에 가는 것은 일을 하러 것과 같지만 갈 때마다 둥근 마을이 폭 품어주는 것처럼 매번 안기러 달려가는 느낌이다. 무엇보다 나는 세대와 환경이 전혀 다른 이들에게 삐그덕대는 소통을 느끼지 않는다. 이들을 알게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낯선 감정 없이, 통속적 관계 형성 없이 친밀해졌던 것은 이들이 가진 특별한 감성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자연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생활의 안과 밖의 구분이 딱히 없으며 능동적으로 본인의 삶을 끌고 가는 사람들. 인위적인 어떤 형상도 가로막지 않는 자연 안에서 사회적 집단에 속하지 않은 채 누구의 엄마가 아닌, 누구의 아내가 아닌, 개인과 개인으로 만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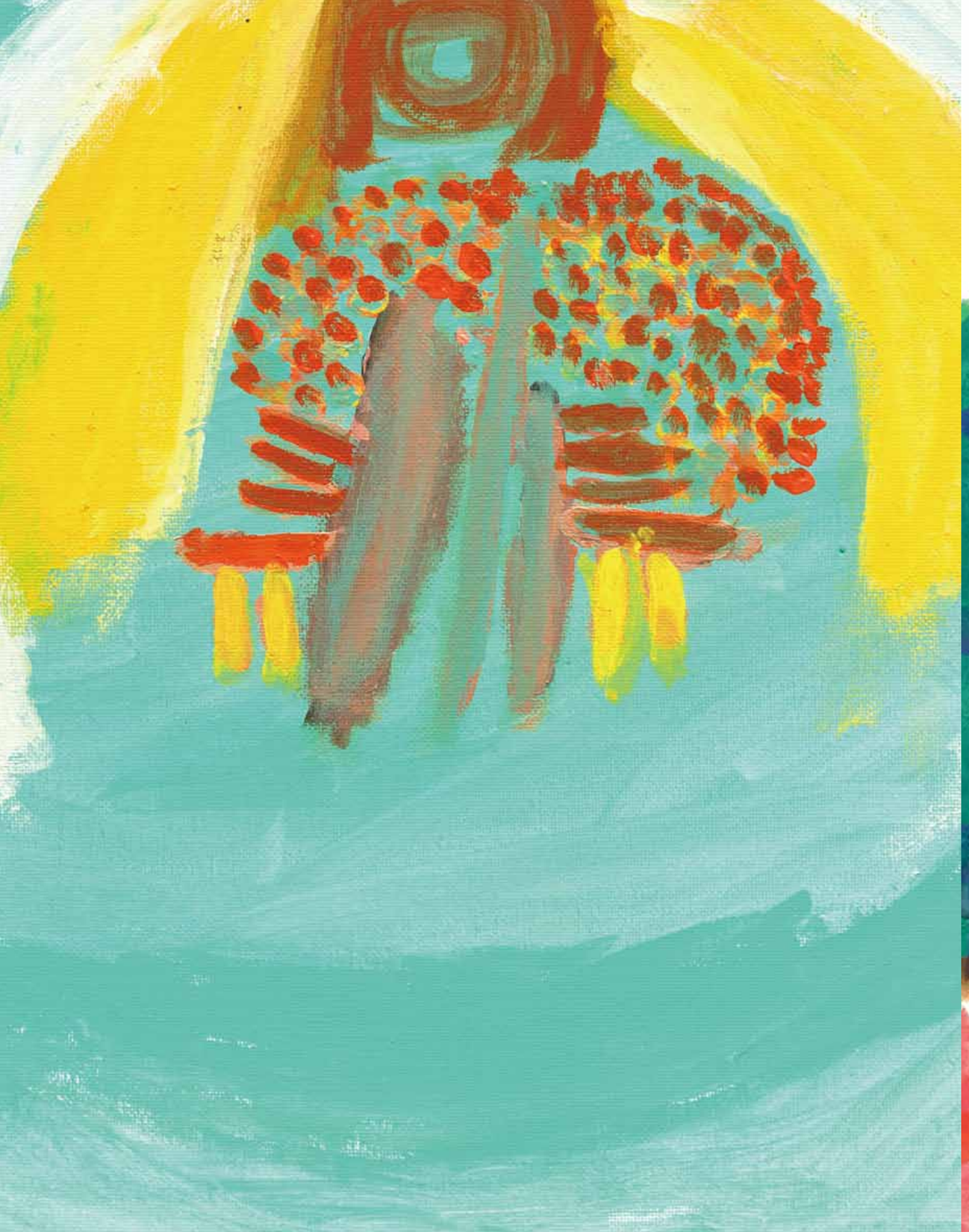
아차도에서의 창작활동은 기억과 지역 공동체의 점차적인 소멸과 함께 한다. 언제까지 이 공동체 예술 활동이 계속될 지 모른다. 누구에게나 유한한 시간이지만, 이 곳에서는 평균적으로 시간이 덜 남아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더욱 모든 것은 유한하다고 배운다. 아차도에서의 예술활동은 육지와는 거리가 먼 고립되어 있는 곳에서 소멸되어 가는 기억을 재생시키며 진행하는 창작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기억의 오류와 신체의 노화도 동반한다. 이 곳에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지각은 이들과 부지런히 창작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다
올해 들었던 뇌리에 남은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다. 구십을 바라보는 분이 그림을 그리다가 말씀하셨다.
“까딱까딱한 사람한테 이런 걸 왜 시켜”
“까딱까딱이 뭐예요?” “까딱까딱 곧 죽을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런 걸 왜 시키냐고!”
“다음에 못 할 수도 있어. 죽어 있을 수 있어. 키득키득”
이 대화를 다른 한 분께 전했더니 빙긋 웃으며 들으시다가 곧 정색하며 지나가는 어투로 말씀하신다.
“그거 맞는 말이야. 진짜 그럴 수 있어. 여기 사는 누구나 다 같은 상황이야.
여기가 다 자가요양원 이라고 할 수 있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여기가 곧 천국이야”
멀지 않은 천국. 담백한 깨달음. 천국과 가까운 곳에서 바다를 옆에 두고 그림을 그리는 이 곳.
인생의 경계에서 하늘과 가까운 수평선을 배경으로 이들은 누구보다 라이브하게 일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곳은 나의 담담한 희로애락을 책임져 준다.

올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창작자 개인의 선택과 결정이었다. 재료와 캔버스 크기부터 자신한테 맞는 것을 선택하고 기획자가 제시한 주제가 아닌 창작자 개개인이 스스로 정한 주제와 소재라는 점에서 지역에서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커뮤니티 아트 작업들과 차별화되길 바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이들은 개별적인 작가로서 작업을 진행하며 그림에는 작가의 고유성이 뚜렷이 보인다.
그림을 그리며 이들을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림을 그리며 나눴던 이야기, 그림과 사람 사이에 밀물같이 오고 썰물같이 가던 이야기들과 이야기에 등장하는 장소와 시절이 그림과 사람 사이에 커다란 틈을 만들었다. 그 틈에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이 호수같이 가득 찼다. 호수같이 크나 한 그릇 정한수처럼 맑다.
그 정한수엔 맑은 달이 비치고 있었다.

2021년에는 아차도 창작자의 아트북 제작을 공간섬알 활동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계획하였다. 올해 작품을 중심으로 2018년부터 진행된 작품들 중 선별하여 아트북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책의 제목은 이정숙의 그림 제목 <너는 이쁘다> 에서 가져 왔다. 이십 여 년 전 자신의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을 완성 후 물끄러미 쳐다보다 “너는 이쁘다” 고 과거의 자신에게 무심코 건넨 말이 작품의 제목이 되었다. 그리고 그 제목을 그림들을 묶은 아트북 제목으로 해야겠다고 일찍부터 생각해 왔다.
너는 이쁘다. 무수한 굴곡이 있던 시간을 지나, 또 힘겨운 생활을 겪고 이겨내고 있던 과거의 젊은 자신에게 건네는 말.
그 세월은 흔들림 없는 단단한 토양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굴을 캐고 김을 매는 여전히 쉬지 않고 있는 뼈마디 굵은 손은 아름답고, 꽃가라 수건을 머리에 단단히 매고 일하러 가는 옆 얼굴은 곱다. 그들에게 이쁜 너는 과거 속 젊은 자신 뿐 일 수 있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나에게는 현재의 너다. 그리고 어쩌면 애쓰는 삶을 살고 있는 모두의 너와 나다.

섬 안에만 있던 그림들이 작년부터 조금씩 세상에 꺼내어졌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섬 밖으로 완전히 외출하려고 한다.
어디 사는 누구의 그림이라는 이름표 전에 작품을 온전히 작품으로 보여주고자 책을 만들고 싶었다. 아차도에서 작업을 (어떤 형태의 예술활동이던 장르의 구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진행하며 느꼈던 수없이 많은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 글을 쓰며 여실히 느끼지만, 여기 실은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그림이 더 많이 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홍유경, 공간섬알 운영자



김순환, <바지락 캐기>, 종이에 수채, 26×37cm, 2018

김순환, <강아지>, 종이에 수채, 24.9×35.1cm, 2021

김순환, <우리 누렁이>, 종이에 포스터 물감, 24.9×35.1cm, 2021

김순환, <누렁이와 나>, 종이에 포스터 물감, 24.9×35.1c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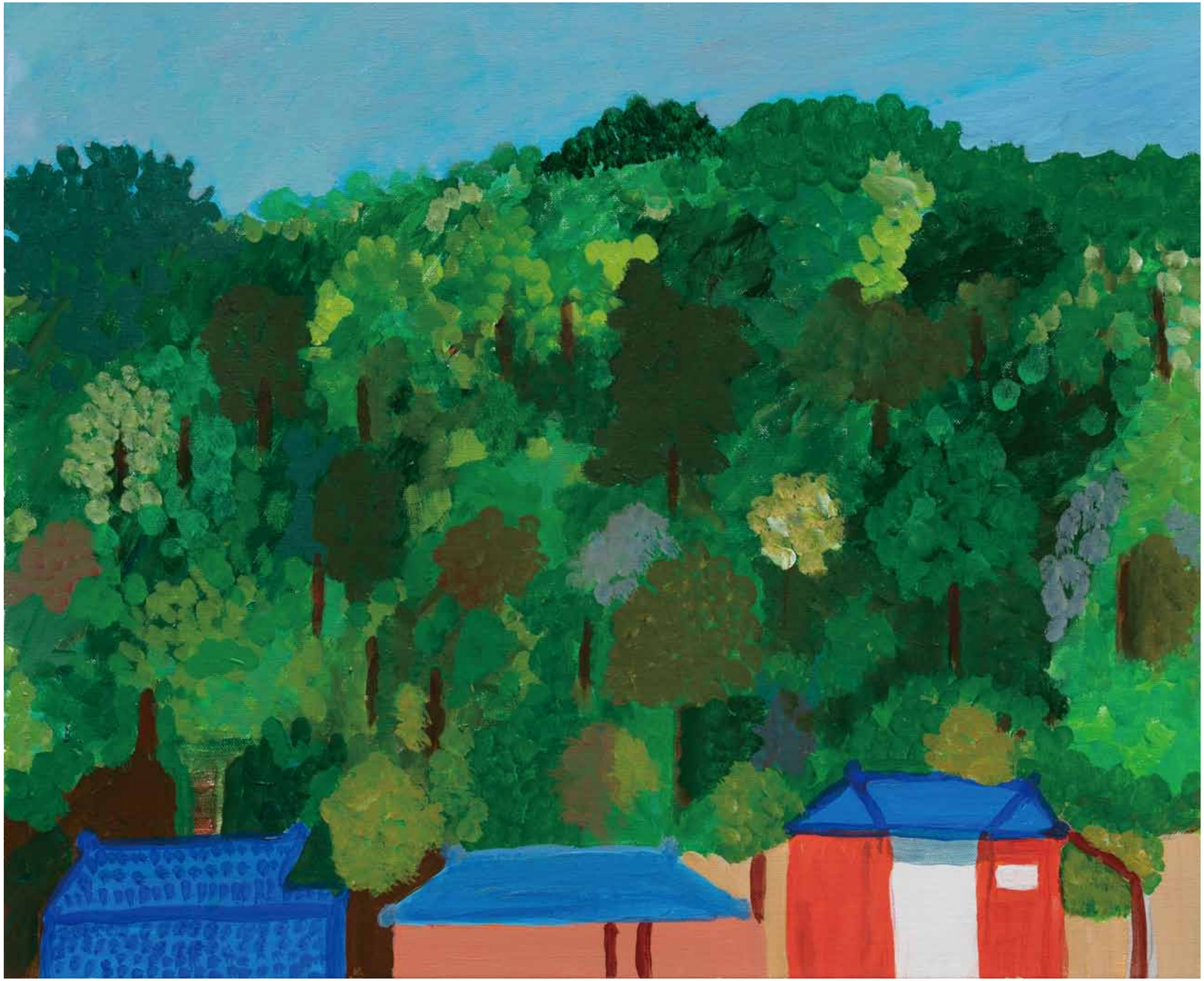
김순환, <집>, 종이에 포스터 물감, 25×25cm, 2021
김순환, <나무>, 종이에 포스터 물감, 39×53.5cm, 2021

김순환, <고목나무>, 캔버스에 아크릴, 50×60.6cm, 2021
김순환, <꽃>, 캔버스에 아크릴, 35.1×24.9cm, 2021

김정희, <산>, 캔버스에 아크릴, 91×65.2cm, 2021

김정희, <달 밑에 나무>, 캔버스에 아크릴, 40.9×53cm, 2021

김정희, <무우>, 캔버스에 아크릴, 50×60.6cm, 2021



김혜경, <무제>, 캔버스에 아크릴, 50×60.6cm, 2021

김혜경, <태풍 링링 오기 전 구름>, 캔버스에 아크릴, 50×60.6cm, 2021

송동순, <나의 인생여정>, 캔버스에 아크릴, 89.4×130.3cm, 2021

송동순, <열정>, 캔버스에 아크릴, 50×60.6cm, 2021

올해 2021년에는 홍유경 작가가 제안을 했다. 각자 캔버스 크기에 맞는 본인들의 이야기를 그리면 어떨까요?
자신들에게 맞는 캔버스 크기를 선택하라고 권하기도 했다. 나의 숨겨진 마음을 내 보일 충동을 느꼈다. 해서 곧바로 나온 나의 말
"그럼 나의 인생 일대기를 그려볼까?" 했더니 작가가 크게 환영해 줬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시작했다.
굉장히 바쁘고 힘든 시골 삶인데 지금 나는 몸이 많이 불편해서 일은 많이 못 하고…
대신 열심히 그려 보려고 했다. 쉽지가 않네요… 하지만 생각과 달리 그림은 영 내 맘에 안 찬다. 그런데도 작가는 잘 한다고 늘 칭찬이다.
한 번 붓을 들면 몇 시간이 흘러간다.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작업이다.
오죽하면 그림을 그리면서 아! 옛날 유명 예술인들이 왜 그렇게 단명들을 많이 했나 이해가 갈 정도였었다.
나의 해맑았던 어린 시절은 병아리와 공기 놀이로 표현했고 일 때문에 배움을 포기해야 했던 시절부터 결혼해서 아이들이 다 자랄 때까지의
힘들었던 삶은 들판과 험준한 산을 넘는 것과 바다 생활로 표현했고 지금 현재의 삶은 평화로운 캔버스와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를 옆에
친구 삼아 함께 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자녀들의 효도를 받고 더 이상 이제 바랄 것 없는 삶이다.
완성을 하고 나니 내 생각대로 표현한 그림이 60프로는 마음에 든다.
내 스스로 애썼다란 말을 하고 싶었다. 그림을 보며 잘 참아내고 지금까지 인생길을 잘 걸어왔구나 란 생각이 들었다.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지만, 작가가 또 제안을 해 준다면 또 한 번 그림에 도전해 보고 싶다.

송동순, <젊은 시절>, 종이에 수채, 26×37cm, 2020

송동순, <신바람>, 종이에 수채, 26×37cm,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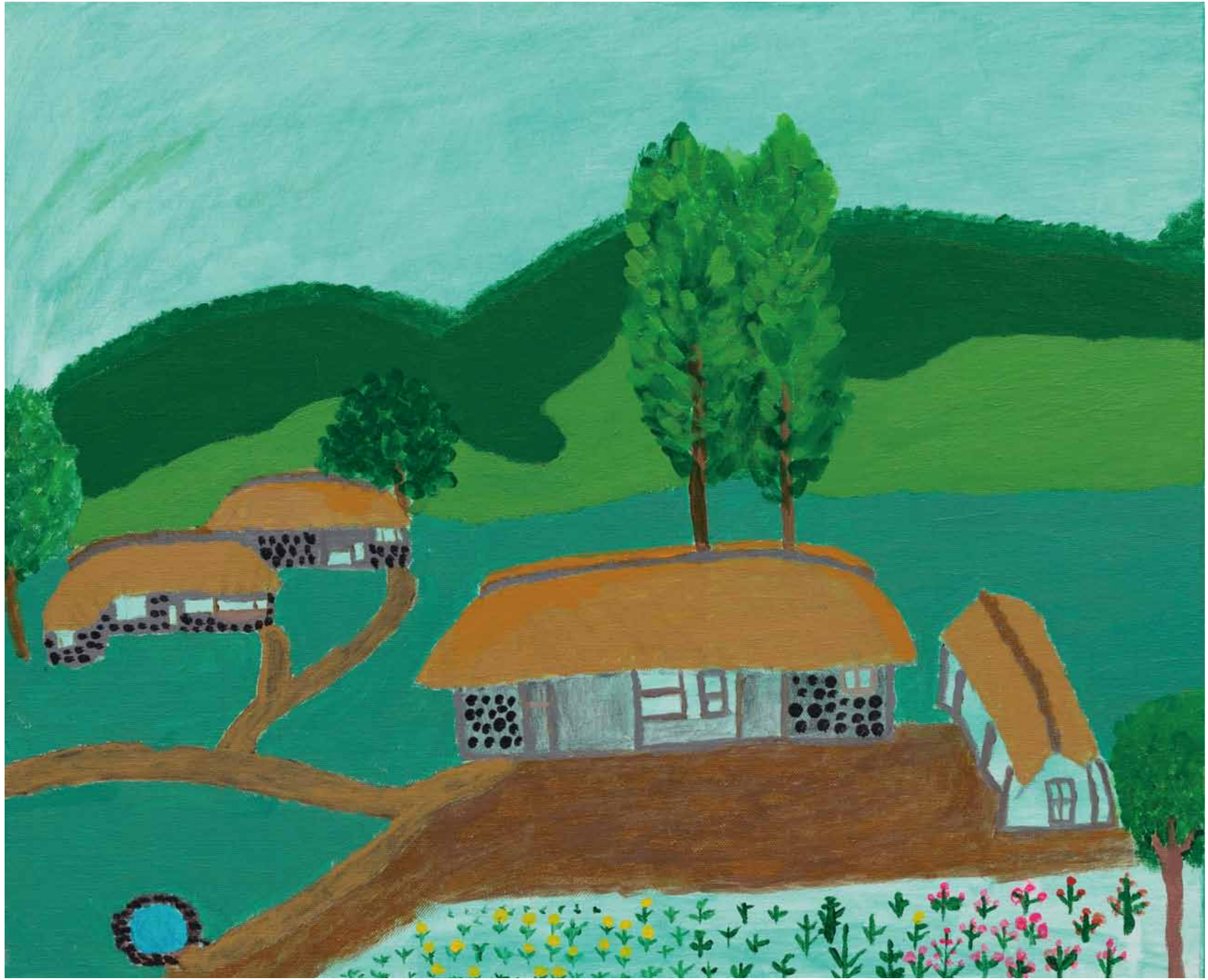
송동순, <매미가 운다>, 종이에 수채, 26×37cm, 2020

송동순, <나의 인생여정_드로잉>, 종이에 연필, 24.9×35.1c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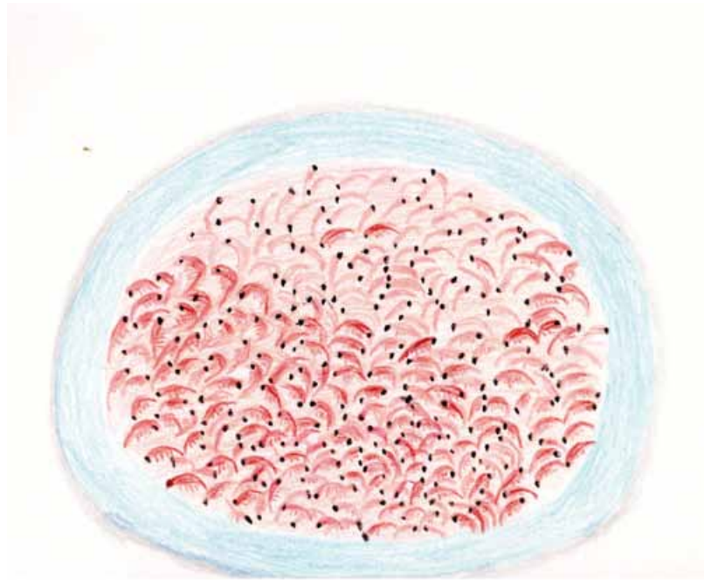
송동순, <나의 인생여정_드로잉>, 종이에 연필, 24.9×35.1cm, 2021

송동순, <나의 인생여정_드로잉>, 종이에 연필, 24.9×35.1cm, 2021

송동순, <나의 인생여정_드로잉>, 종이에 연필, 24.9×35.1cm, 2021



여정숙, <옛집>, 캔버스에 아크릴, 50×60.6cm, 2021
어릴 적 살던 옛집에 어린 추억은 어디 있을까



여정숙, <새우젓>, 종이에 펜, 24.9×35.1cm, 2018

여정숙, <새우젓>, 종이에 색연필, 24.9×35.1cm, 2018

여정숙, <동심>, 종이에 수채, 26×37cm, 2020

여정숙, <어미소와 아이>, 종이에 수채, 26×37cm, 2020

20. 7. 13
여 정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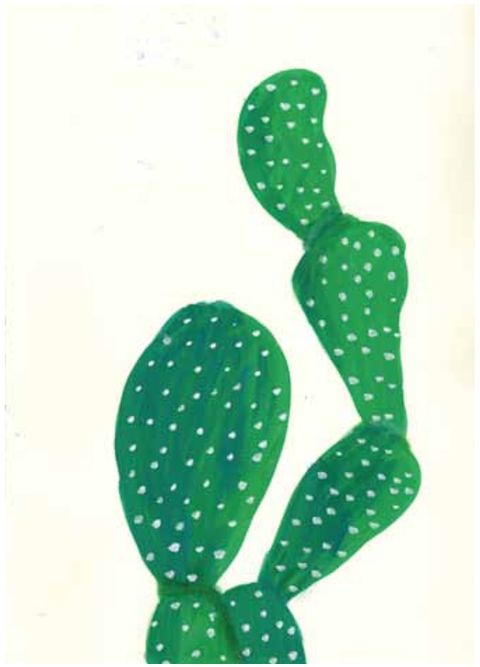
여정숙, <나의 쉼터>, 캔버스에 아크릴, 33.4×45.5cm, 2021
뙤약볕에 흘린 땀방울 솔바람에 씻어보는 나만의 호젓한 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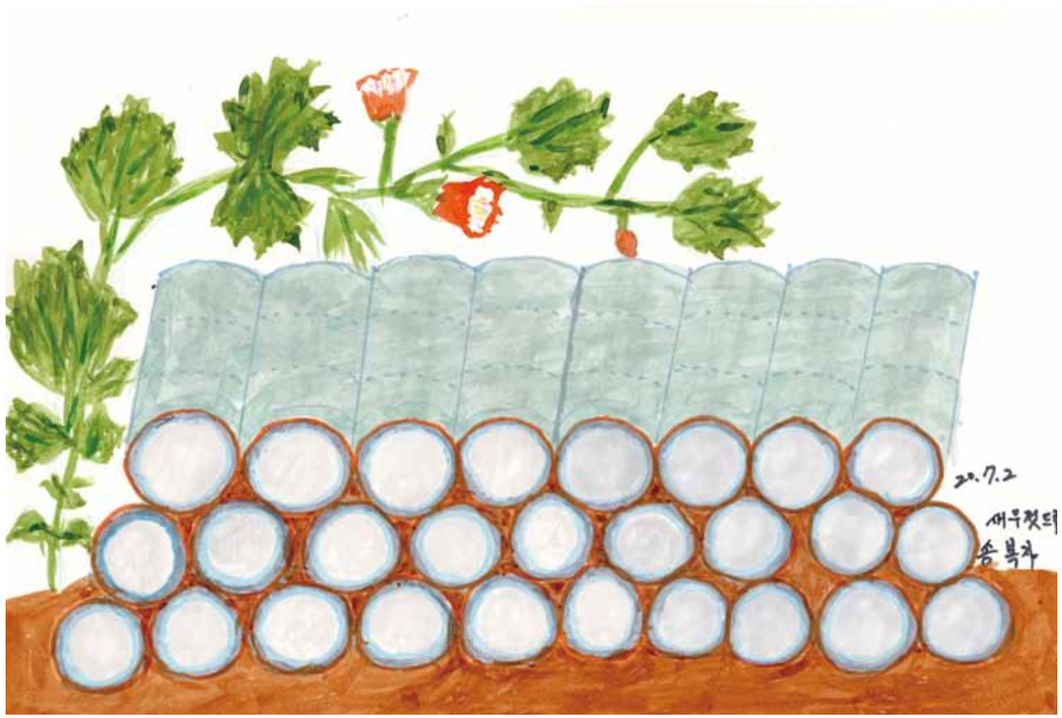
여정숙, <머나먼 곳>, 캔버스에 아크릴, 60.6×50cm, 2021
수평선 저 쪽 바닷물은 오가는데 거기 누가 살고 있을까

송복자, <짱구 맨드라미>, 종이에 수채, 26×37cm, 2020

송복자, <호박>, 종이에 아크릴, 29.3×41.5cm, 2021

송복자, <한 지붕 두 가구>, 종이에 아크릴, 29.3×41.5cm, 2021





송복자, <선인장>, 종이에 수채, 24.9×35.1c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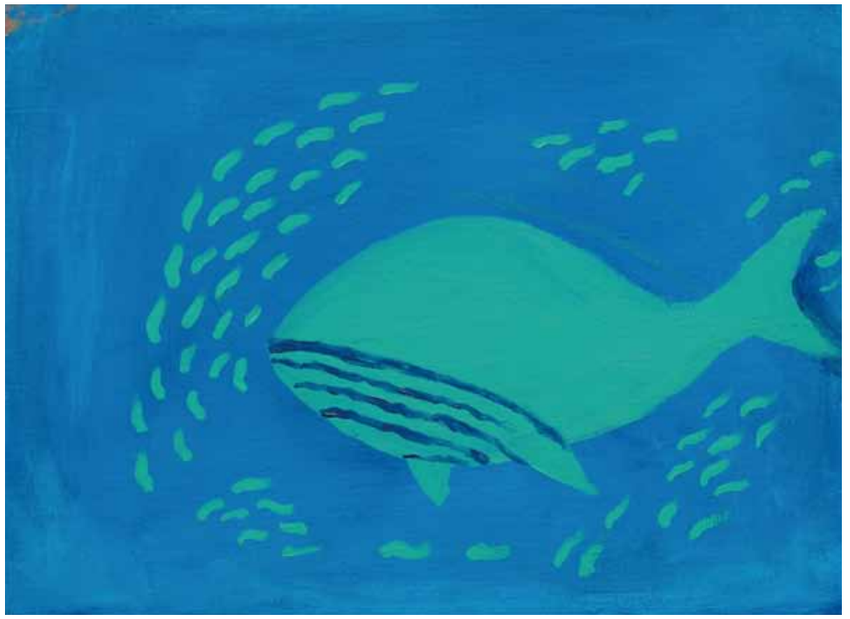
송복자, <얄미운 참새>, 종이에 수채, 24.9×35.1cm. 2021

송복자, <아차도 특산물 새우젓통>, 종이에 수채, 마카, 26×37cm, 2020

이승희, <참, 어렵네!>, 종이에 수채, 26×37cm, 2020

이승희, <인생, 대못, 밧줄>, 캔버스에 아크릴, 50×60.6cm, 2021

이승희, <전철은 타는 거지 밟는 게 아니다>, 50×60.6c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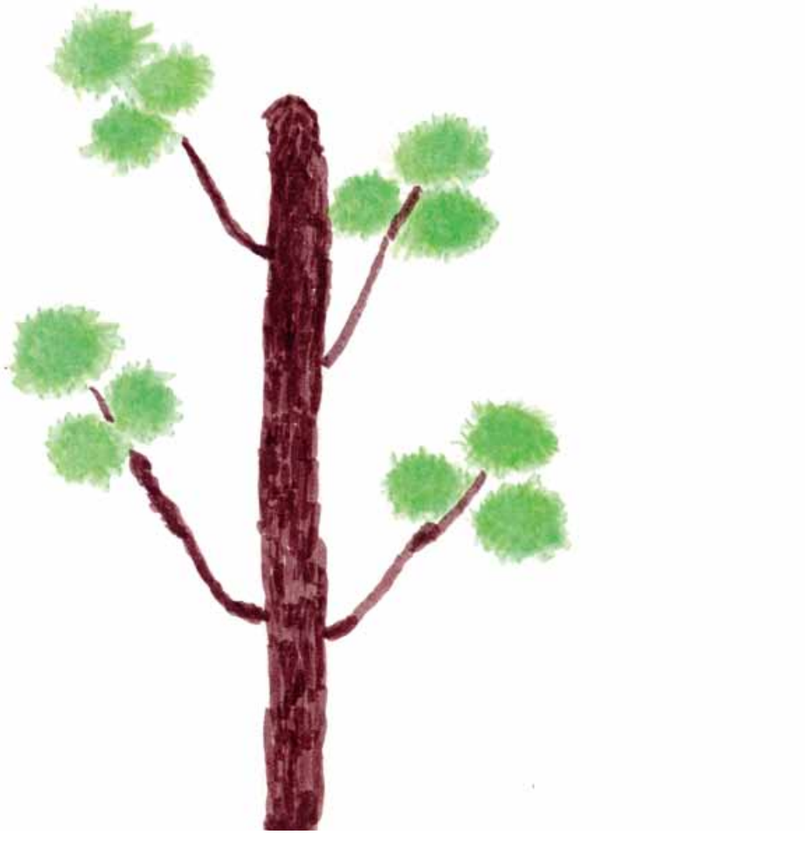
이승희, <무제>, 캔버스에 아크릴, 50×60.6cm, 2021

이승희, <고래와 치어들>, 캔버스에 아크릴, 33.4×45.5cm, 2021

김성자, <연꽃>, 종이에 수채, 26×37cm,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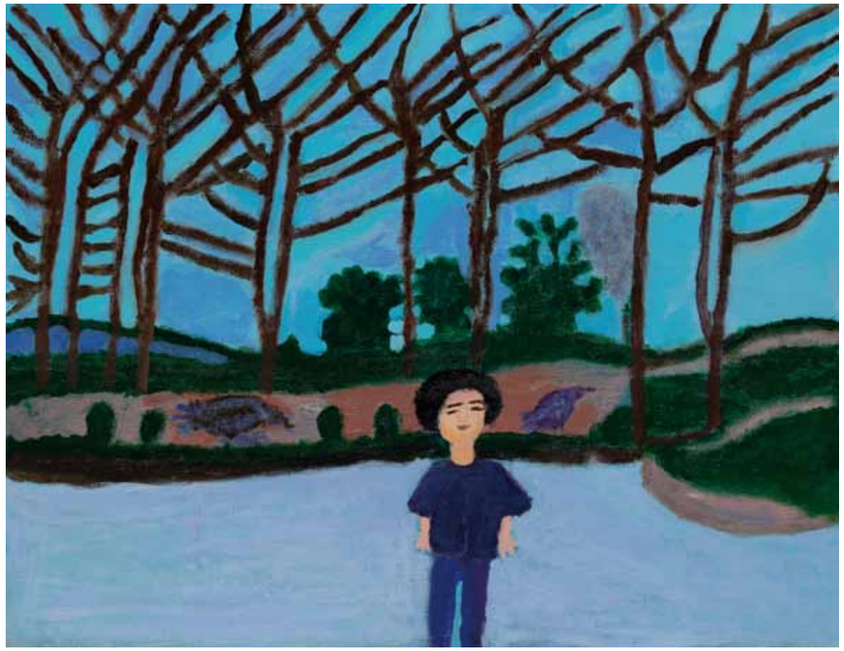
김성자, <화려한 외출>, 종이에 수채, 53.5×39cm, 2020

이정숙, <웃모르재>, 종이에 혼합매체, 24.9×35.1cm, 2021



이정숙, <소낭구>, 종이에 붓펜, 21×29c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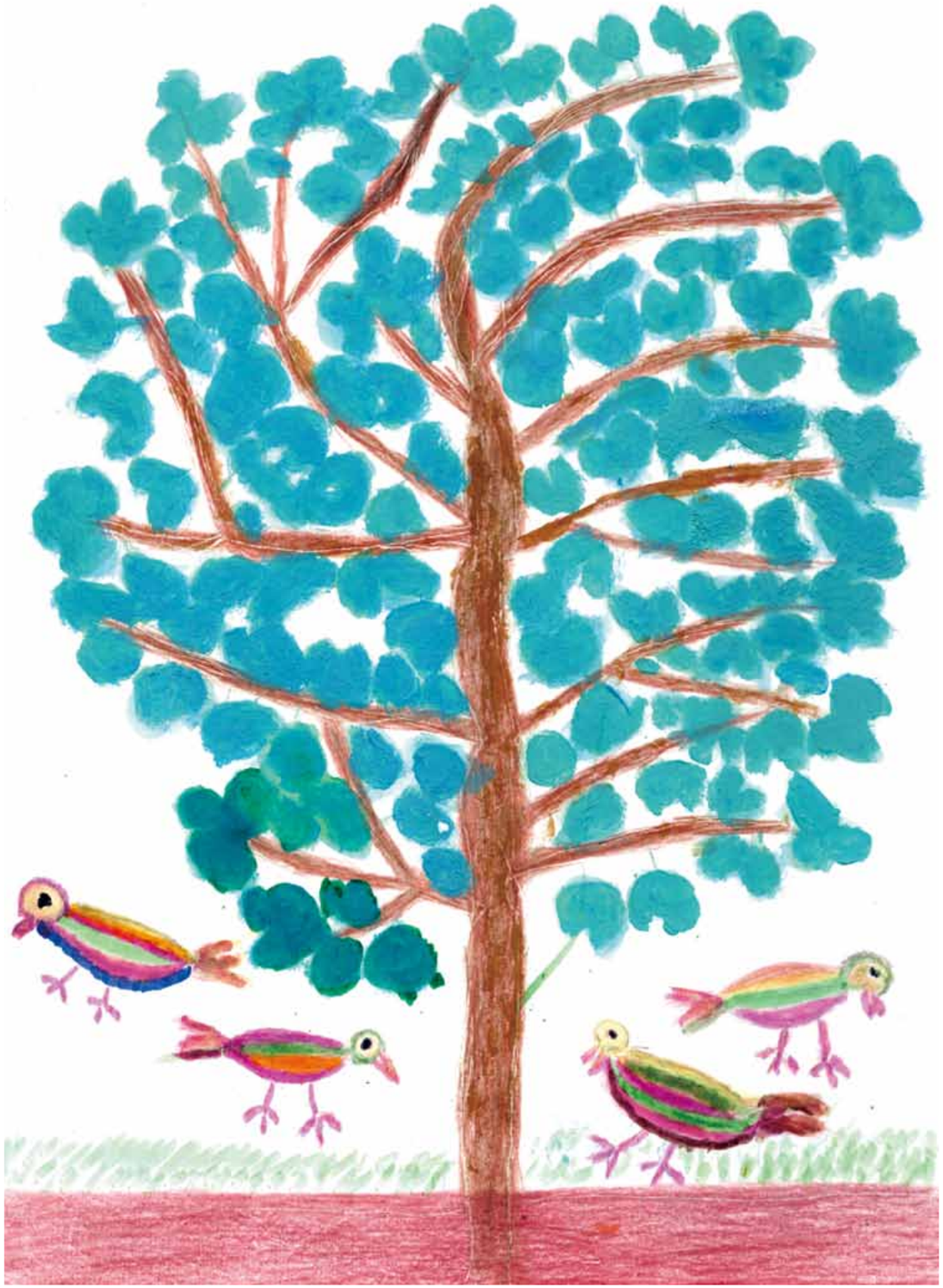
이정숙, <이쁜 낭구>, 종이에 색연필, 27×39.2cm, 2021



이정숙, <너는 이쁘다>, 캔버스에 아크릴, 53×40.9cm, 2021

이정숙, <외포리>, 종이에 혼합매체, 24.9×35.1cm, 2021

이정숙, <친구 만나 기념으로 찍었다>, 종이에 혼합매체, 24.9×35.1c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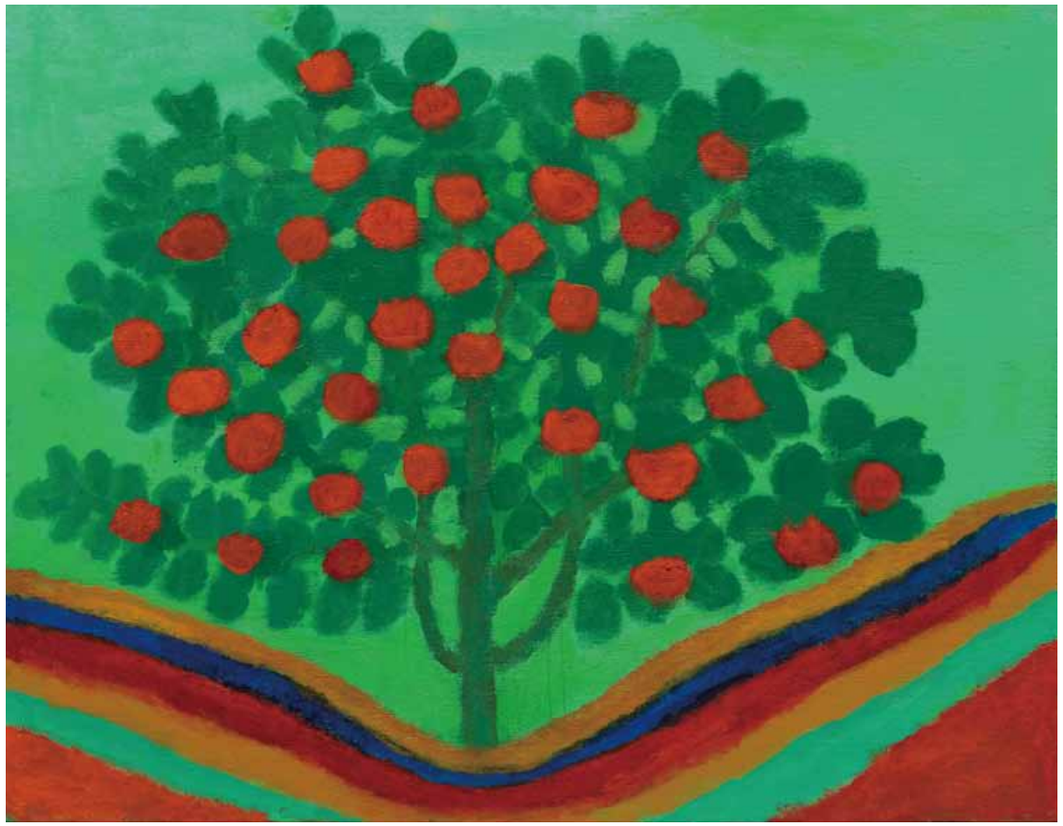
좋아하던 꽃을 그림으로 그리니 신기하지.
연필도 못 잡던 사람이 이런 걸 그리니 참 신기하다 하고 좋은 마음이 들어가.
어떻게 내가 이걸 그렸나
그릴 땐 모르고 그렸는데 어떻게 내가 그렸나 생각을 해.
남들이 집에 와도 그림만 그린다는 소리 듣고 그린 거야.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못 그리거든.
돌아다니면서 이쁜 낭구만 보면서 다녀.
저 낭구를 그리고 싶은데 못 그리네 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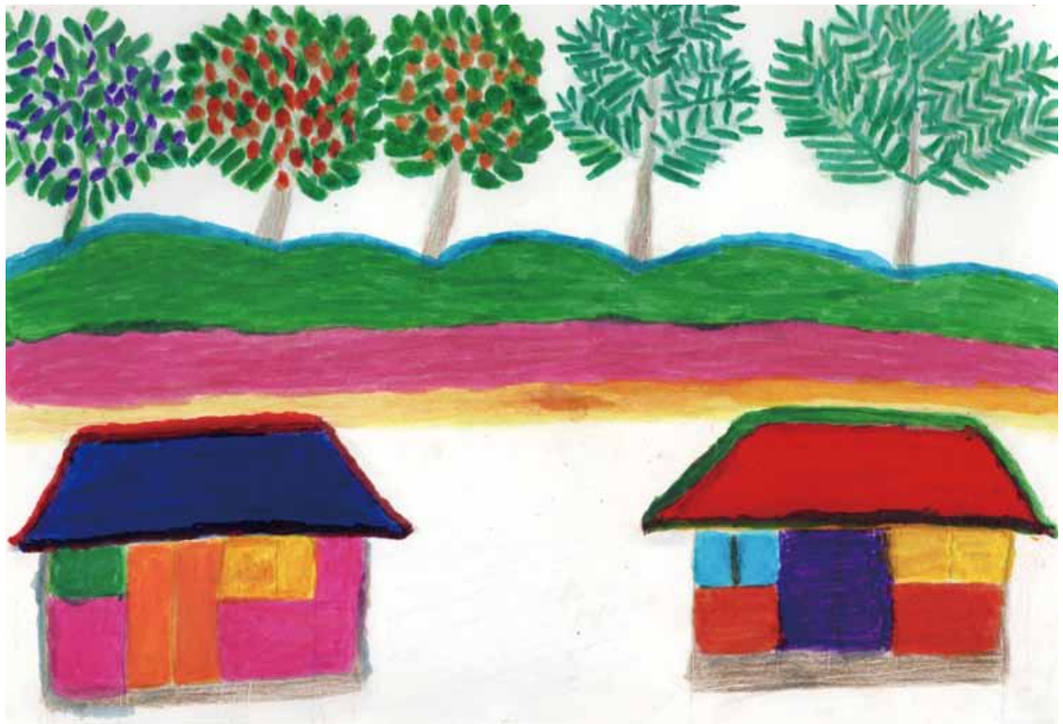
잊어버릴까 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안 잊어버려져.
에라이 그림이나 그리자 하고 그리고 나서부터 나도 모르게 한숨이 실컷 울었던 사람같이 흐느끼듯 나와.
이유는 모르겠어.

이정숙, <은행나무>, 종이에 혼합매체, 35.1×24.9cm, 2021

이정숙, <겨울 나무>, 종이에 색연필, 32×43cm, 2021

이정숙, <첩첩산중>, 종이에 색연필, 아크릴, 32×43cm, 2020





이정숙, <사과 낭구>, 캔버스에 아크릴, 40.9×53c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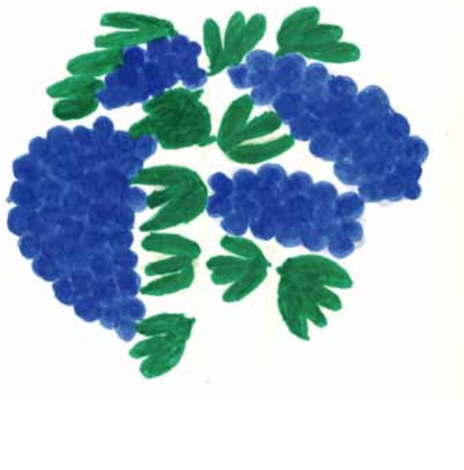
이정숙, <대추나무 골>, 종이에 색연필, 붓펜, 24.9×35.1, 2021

이정숙, <코스모스>, 종이에 색연필, 붓펜, 21×29cm,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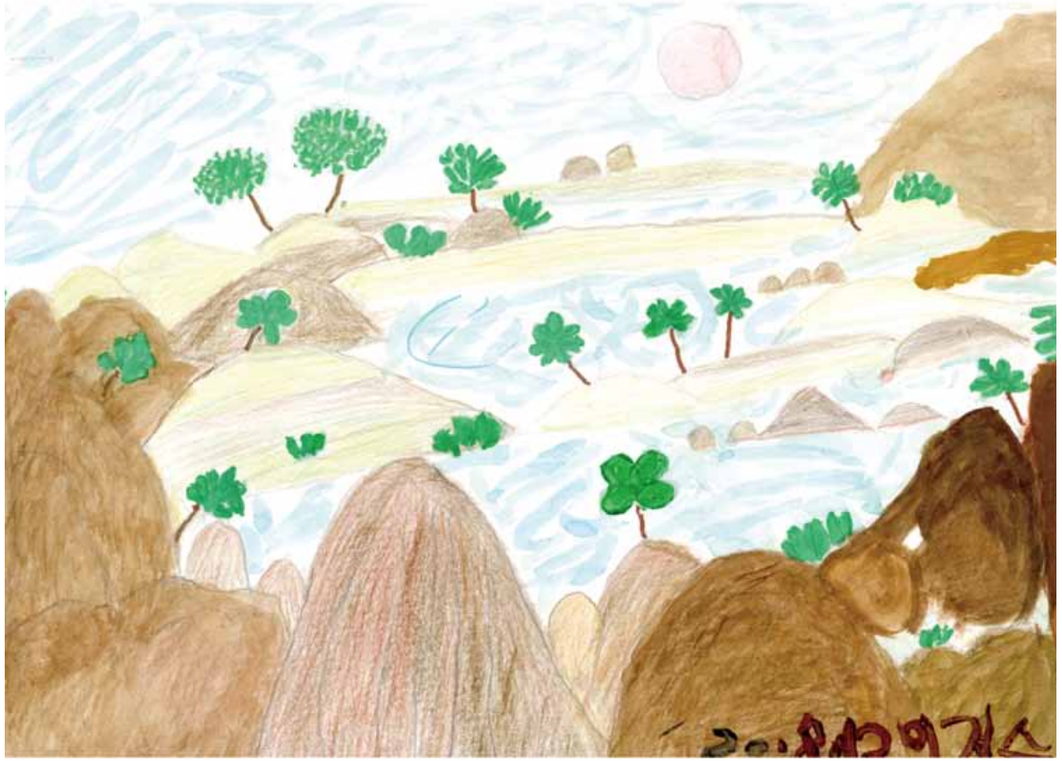
이정숙, <할매꽃>, 종이에 붓펜, 아크릴, 29×21c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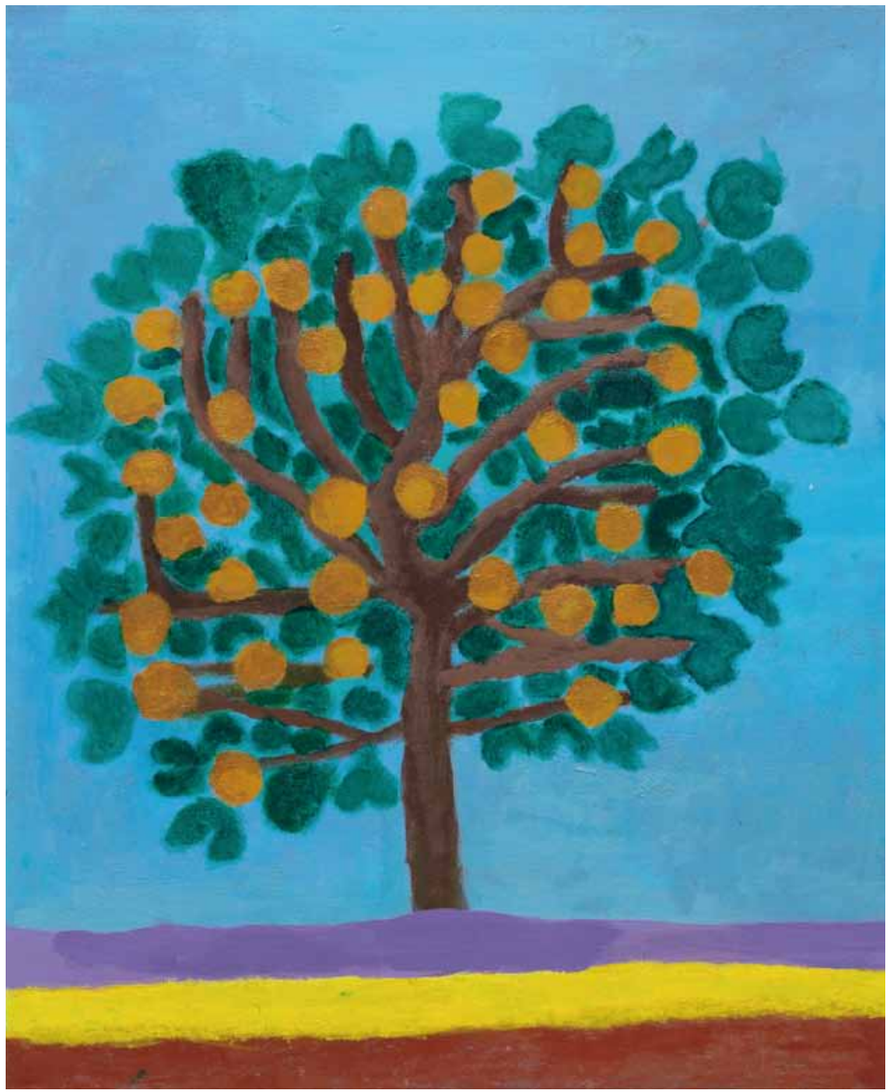
이정숙, <포도>, 종이에 색연필, 붓펜, 21×29cm, 2021

이정숙, <딸네 책상 위 화분>, 종이에 색연필, 붓펜, 21×29cm, 2021



이정숙, <겨울에도 빨간 나무>, 종이에 색연필, 수채, 32×43cm, 2021





이정숙, <산이 하두 이뻐서>, 종이에 색연필, 수채, 32×43cm, 2020
이정숙, <레몬 낭구>, 캔버스에 아크릴, 60.6×50c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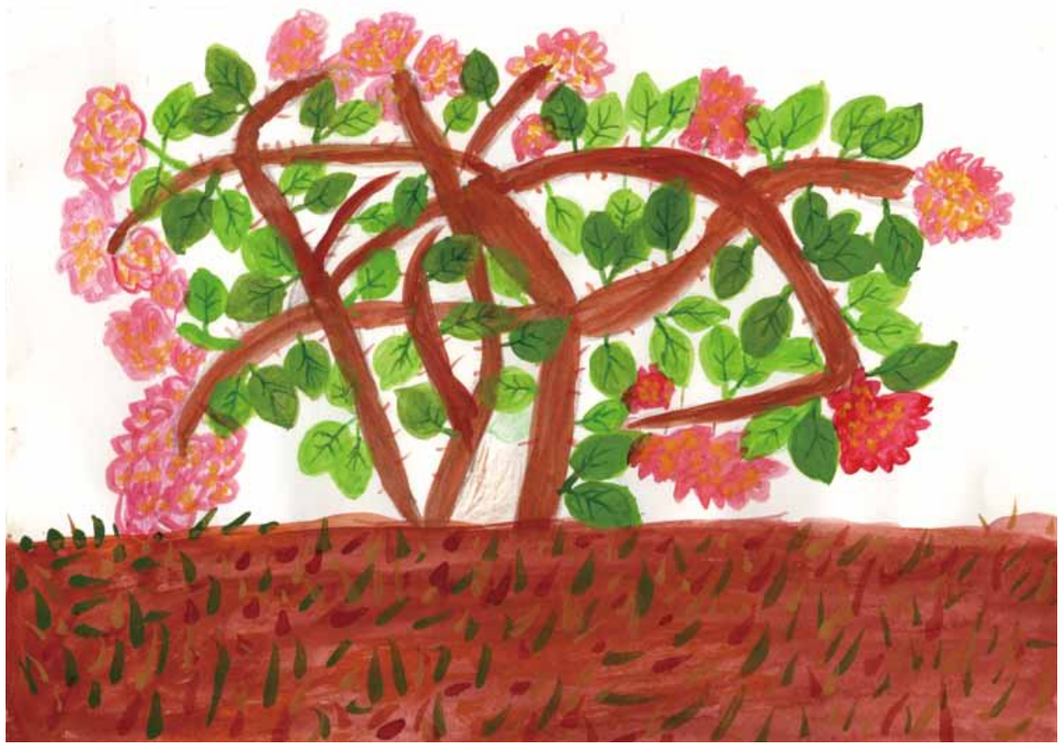
정연옥, <삼산 초가집>, 종이에 수채, 26×37cm, 2020
정연옥, <은행나무>, 종이에 수채, 53.5×39cm, 2020

조영분, <꿈의 집>, 캔버스에 아크릴, 80.3×100cm, 2021

(다음 페이지) 조영분, <신기한 돌과 생일꽃>, 캔버스에 아크릴, 89.4×130.3cm, 2021

조영분, <꽃>, 종이에 아크릴, 41.5×29.3cm, 2021

조영분, <꽃>, 종이에 아크릴, 37×26cm, 2021
조영분, <꽃>, 종이에 수채, 26×37cm, 2021



조영분, <엄마 생각나는 20년 넘은 선인장꽃>, 종이에 수채, 53.5×39cm, 2020

조영분, <제주도 여행>, 종이에 색연필, 수채, 24.9×35.1, 2020

조영분, <꽃>, 캔버스에 아크릴, 60.6×50cm, 2021

너는 이쁘다

기획 공간섬알
작가 김순환 김정희 김혜경 송동순 여정숙 송복자 이승희
김성자 이정숙 정연옥 조영분
발행처 공간섬알
발행일 2022.2

디자인 석윤이 (모스그래픽)
인쇄 상지사피앤비
작품 촬영 권오열

공간섬알
인스타그램 https://www.instrgram/space_seomal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paceseomal

주최 인천광역시
주관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협력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 인천 문화예술교육 기획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2022. 공간섬알 All rights reserved.
본 책자에 실린 글과 도판은 공간섬알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